경찰불자들 "국민의 평온, 불교와 완성"

경찰청·서울경찰청 봉축법회
진우 스님, 본청서 소참법문
"일상 속 명상, 업무에 도움"
선업 스님은 서울청서 격려

윤호섭 · 김내영 기자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봉축대법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이 경찰의 상징인 참수리 장엄등에 불을 밝혔다. 사진=이민우 기자



서울경찰청 봉축대법회.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내빈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 장엄등을 점등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경찰불자들이 공정한 경찰로서 국가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으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경찰전법단, 경찰청불교회는 4월 22일 경찰청 본청 1층 로비에서 '부처님오신날 경찰청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경승단 총재)을 비롯해 경승실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 경승 남전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승단 총재인 진우 스님은 준비된 원고 대신 축원과 소참법문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스님은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작성한 소원지에서 개인 이름을 낭독하며 축원을 올렸다.

진우 스님은 보살행의 기본인 육바라밀을 강조한 뒤 현재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과 일상생활 속 명상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하루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반야심경을 외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수행이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여러분의 자비행과 보살행이 국민행복을 만들어간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승실장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2600여 년 전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위해 불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거룩한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다"며 "여기 모인 경찰 가족 여러분도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소임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자비의 실천자들"이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정진하면서 행복한 세상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가 실현되길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국난극복에 앞장선 불교에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부터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14만 경찰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며 "경찰이 지켜갈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완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 "불교계와 경찰이 화합 소통해 한층 더 돈독해지고 공통의 목표로 정진한다면 부처님 법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회 대중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호법신장이 되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탐욕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지혜의 광명을 밝힐 것을 발원했다.

진우 스님과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은 법회를 마친 뒤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장엄등에 불을 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 경찰청 로비를 밝힌 참수리 장엄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도 이튿날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조지호 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선업 스님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호법신장"이라며 "국민 평화를 수호하는 호법신장의 행원을 실천하는 경찰 여러분의 원력이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노고를 격려했다.

그간 경찰 포교에 진력해온 경승스님과 경찰불자들에게 감사장과 표창장도 수여됐다. 서울경찰 불교회 발전에 힘써온 이경진 서울경찰청 불교회 부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을, 박재서 부회장이 포교원장 표창을, 한철민·김덕숙 회원이 경승실장 표창을, 민승희 총무가 경찰전법단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황룡사 주지 진철 스님,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성각사(서초) 주지 도헌 스님, 정각사(성북) 총무 정수 스님, 정미자 불자가 포교 활동으로 경찰행정 발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조지호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두운 방에 등을 밝히면 암흑이 사라지듯, 보다 많은 경찰이 국민의 아픔 함께하고 사회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주지선거 '단일화' 전통 깨고 3파전

화평 · 덕산 · 일원 스님 입후보…4월 30일 산중총회



화평 스님



덕산 스님



일원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선거가 오랜 '단일화' 전통을 깨고 경선에 들어간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지도력 아래 수십 년간 후보를 단일화해온 문중 화합의 세월은 대종사의 2021년 원적과 함께 역사로 남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08차 회의를 열고, 금산사 주지후보로 등록한 화평·덕산·일원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산사는 4월 30일 개최하는 주지후보자 선출 산중총회에서 대중의 표심으로 당선자를 가릴 전망이다.〈차주 상보〉

주지후보자로 출마한 세 스님은 모두 같은 태공문도회다. 월주 대종사가 금산사 조실로 있을 때보다 문중 화합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화평 스님과 일원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좌이고, 덕산 스님은 월주 스님의 맏상좌인 도영 스님의 상좌로 월주 스님의 손상좌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세 후보가 갖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기호 1번 화평 스님은 1988년 수계한 이후 금산사 교무국장을 비롯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을 역임하고, 16대부터 중앙종회의원을 세 차례 연임해 종단 내 입지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호 2번 덕산 스님은 1979년 수계한 이후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과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금선암 주지로 사업 추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일원 스님은 1975년 수계한 이후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하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 교구장으로서 4년간 안정적으로 교구를 이끌어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금산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는 총 117명(비구91·비구니26)으로 확정됐다.

윤호섭 기자

명상의 가치, 3D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세우다' 미디어콘텐츠 제작

일상생활 속 명상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3D 애니메이션이 제작됐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천년을세우다' 미디어콘텐츠 3번째 작품 3D 애니메이션 '미소'를 제작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미소'는 사발면을 먹고 싶은 김윤후(중2 여학생)가 엄마와 다툰 뒤 집 밖에 나와 학예사인 아빠 김석구를 따라 출장지에서 겪을 일화를 담고 있다. 산속 절터 발굴현장에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명상을 체험하며 가족의 화해를 담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상영 길이는 7분 40초다. 제작은 ㈜안드로메다스튜디오가, 감독은 김정호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영화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조계종 포교원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혜장 스님이 제작 실무에 참여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보인 3D 애니메이션 '미소'의 한 장면. 아빠 김석구와 딸 김윤후가 명상을 체험하며 가족의 대화를 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프로그램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 시 수상금 및 특전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 모 명 :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 공모주제 :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시행 대상 : 유가족,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 대 상 : 명상지도사, 자살예방 강사 및 교육생,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프로그램 워크북 1부
    –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 공지사항에서 '문체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에서 다운받아 사용
    – 프로그램 설명서 및 워크북은 제본(5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도구 반드시 제출
- 공모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5월 24일(금)
- 접수방법
  * 원본서류는 우편, 파일은 이메일로 모두 제출
  * (우편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불교상담개발원 공모 담당자 앞
  * (이메일주소) jabi0001@naver.com
  * 우편물은 종료일 우편소인 날짜까지 한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수상

구 분	수 상 금	선 정
대상	2,000,000원	1개
최우수상	1,000,000원	1개

- 선정발표 : 2024년 5월 31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심사 및 결과 발표 시기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 프로그램 특전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의 자문, 강사비 등 운영비 지원
  * 〈몸 · 마음 · 쉼 자살예방 명상프로그램〉 워크북 제작 및 배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 사업 전개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